

## 배기성 ♥ 이은비 돌발 전복 키스에 스튜디오 발칵

등록 2026.03.10 08:45:02



[서울=뉴시스]'조선의 사랑꾼'(사진=TV조선 제공) 2026.0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가수 배기성 부부가 금실을 자랑했다.

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서로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는 배기성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배기성은 30년 지기 절친 윤정수와 그의 아내 원진서를 초대해 보양식 진수성찬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얼마 전 생일을 맞은 윤정수는 장인·장모가 선물한 금목걸이를 자랑하며 "장모님이 연초에 사신 거라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웃음 지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내 이은비는 배기성의 입에 있던 전복을 직접 뺏어 먹는 돌발 스킨십을 선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스튜디오의 황보라는 "미쳤나 봐! 괜찮아요?"라며 놀라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까지 오게 됐다고 몸 상태를 고백했다.

이에 윤정수는 "8일은 멀쩡한 사람도 죽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심지어 윤정수는 "사실 (아내와) 연애 초반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에 CT 찍으러 갔었다. 뇌혈관이 터지는 줄 알았다"며 비슷한 위기 상황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원진서가 "하루에 몇 번씩"이라고 두통의 원인을 깜짝 폭로하자, 배기성은 "애 낳으려다 아버지가 먼저 죽겠다"며 앓는 소리를 내 폭소를 유발했다.

또, 배기성은 무명 시절 인기 스타였음에도 자신을 살뜰히 챙겨준 윤정수에게 편지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가수 활동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정수가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윤정수 또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은 기성이뿐"이라며 두터운 신뢰를 드러내 감동을 선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